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4호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Vol. 11. No. 4. pp. 147-166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14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남아와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은하** 박주희***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Disparity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eon, Eun Ha Park, Ju Hee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남아와 여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산시와 경남지역의 세 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21명과 그들의 어머니였다. 유아의 문제행동은 담임교사가 보고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외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내재적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 주제어 : 유아의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 본 연구는 2015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제 1저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E-mail : ehjeon@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E-mail : juheepark@yonsei.ac.kr)

Ⅰ. 서 론

유아기는 신체, 인지,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며, 가족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유아는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욕구의 좌절이나 갈등을 경험하며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친구를 밀거나 때리기, 장난감 독점 등 어른을 성가시게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유아에게도 관찰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Campbell, 2002). 그러나 일부 유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3～17%의 유아들이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Kaiser & Rasminsky, 2012).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한 학급 내 40% 정도의 유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하루에 1회 이상, 10%의 유아는 하루 6회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Willoughby, Kupersmidt, & Bryant, 2001). 또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유아교육기관을 그만두는 유아의 비율이 학령기 아동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경향(Gilliam, 2005)도 보고되고 있어, 유아기 문제행동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기의 공격성, 반항적 행동, 과잉행동, 사회적 위축 등 문제행동은 학령기 뿐 아니라 성인기의 심각한 문제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Campbell, Shaw, & Gilliom, 2000; Coplan & Rubin, 1998). 또한 유아의 문제행동은 인지 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을 방해하며, 유아 자신뿐만 아니라 또래를 비롯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이후 학교적응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iser & Rasminsky, 2012). 이와 같은 유아기 문제행동의 장・단기적인 부정적 영향과 증가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대상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독립적인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여 다양한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기정, 전숙영, 2010). Barber(1996)에 따르면 심리적 통제란 애정을 매개로 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negative, love-oriented discipline)이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애정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자신감이나 죄책감 자극, 실망감의 표현, 애정철회, 고립시키기 그리고 수치감 느끼게 하기 등을 통해 자녀를 훈육하려고 시도한다. 다시 말해, 칭찬하기나 합리적 설명 등과 같이 애정을 매개로 한 긍정적인 훈육방식(positive, love-oriented discipline)과는 달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자녀 간 애정관계를 미묘한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리적 통제는 체벌, 소리 지르기, 언어적 위협 등과 같은 권위적 훈육방식과도 구분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가 우울, 불안, 위축,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을 더 자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기정, 전숙영, 2010; 민정임, 한세영, 2012). 국외 선행연구들 또한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Stone et al., 2013; Verhoeven, Junger, Van Aken, Dekovic, & Van Aken, 2010)과 내재적 문제행동(Stone et al., 2013)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Steinberg(200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자녀의 자율성을 좌절시켜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독립과 의존이라는 갈등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문제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력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윤주, 2004). 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또 다른 요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단독적인 영향력보다 유아의 기질특성을 함께 살펴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omas와 Chess(1977)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는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부조화가 있을 때 역기능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다른 기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기대나 요구에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따라 유아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Thomas & Chess, 1977). 유아의 기질과 기질에 대한 양육자의 기대나 요구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유아는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Paterson & Sanson, 1999).

실제로 선행연구 결과들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어머니는 유아에게 비난이나 공격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킨다(이시자, 2013). 이러한 결과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유아는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높은 불안 수준을 보였으며(허미경, 이소은, 2010),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외현적 문제행동과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혜원, 2012; 장유진, 이강이, 2011). 국외 선행연구들도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요구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Van Aken, Junger, Verhoeven, Van Aken, & Dekovic, 2007) 보고하였으며, 비단 까다로운 기질 뿐 아니라 다루기 쉬운 기질 또한 양육자의 기대에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유아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Bates, 1990; Paterson & Sanson, 1999)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서주현, 이순형, 2009; 장유진, 이강이, 2011).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자녀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선호를 평가하는 것이다(김정민, 윤진, 1992; 한세영, 박성연, 1996). 반면 최근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단순한 선호보다는 어머니가 실제 유아에게 어떤 기질적 특성을 보이도록 요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주현, 이순형, 2009; 허미경, 이소은, 2010). 그러나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장유진과 이강이(2011)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어머니가 유아에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요구하는 바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권기정, 전숙영, 2010; 정윤주, 2004; Barber, 2002; Stone et al., 2013)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혜진, 김영아, 이진, 오경자, 2009;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의 결과에 따라 유아 연령의 영향을 통제 변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세 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21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와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N*=221)

변인	구분	유아	어머니	아버지
		n (%)	*n* (%)	*n* (%)
성	남	117(52.9)	-	-
	여	104(47.1)		
연령	만 4세	115(52.0)	-	-
	만 5세	106(48.0)		
부모연령	만 26～30세	-	12(5.4)	9(4.1)
	만 31～35세		87(39.4)	39(17.6)
	만 36～40세		92(41.6)	105(47.5)
	만 41～45세		24(10.9)	57(25.8)
	만 46～50세		6(2.7)	11(5.0)

주. -은 해당 대상이 없음을 의미함.

2. 연구 도구

1)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최승숙, 한경근 그리고 신현기(2008)가 번안한 Merrell(2003)의 유아행동척도(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를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만 3~6세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평가할 목적으로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개발된 척도이며, 문제행동척도 42개 문항과 사회적 기술척도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 42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척도는 자기중심성, 산만/행동과다, 공격성 등 외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27개 문항과 사회적 위축, 불안에 관련된 내재적 문제행동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평소 유아가 보인 행동을 근거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하위 영역별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살펴보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27점~108점이며, 내재적 문제행동의 가능한 총점 범위는 15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공격성, 과잉행동, 산만성, 반사회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및 신체화증상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등 외현적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과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피한다', '걱정이 많고 긴장해있다' 등 내재적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문제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외현적 문제행동이 .96, 내재적 문제행동이 .85였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권기정과 전숙영(2010)이 어머니 자기보고식으로 번안·수정한 Barber(1996)의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를 사용하여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자신감이나 죄책감 자극, 실망감 표현, 애정철회, 고립시키기, 수치감 느끼게 하기 등 부모-자녀 간 애정관계를 미묘하게 조작하는 훈육방식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6점~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감이나 죄책감 자극, 실망감 표현, 애정철회, 고립시키기, 수치감 느끼게 하기 등의 방법으로 유아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아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차갑게 대한다', '나는 아이가 내게 섭섭해 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16개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4였다.

3)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

질차원 검사(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DOTS-R: ethnotheory)에 기초하여 서주현과 이순형(2009)이 번안・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의 구성은 크게 유아의 기질을 평가하는 부분과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활발한 기질(12개 문항), 규칙적 기질(9개 문항), 적응적 기질(9개 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기질 요인별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발한 기질은 유아의 활동수준과 주의분산정도가 높고 주의집중이 낮은 활발한 속성을 의미한다. 규칙적 기질은 수면, 식사, 일상습관에 있어서 모두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하며, 적응적 기질은 유연성과 접근성이 높고 경직되지 않으며, 긍정적인 기분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각 하위영역별 구성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서주현, 이순형, 2009 등)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 기질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활발한 기질 .63, 규칙적 기질 .77, 적응적 기질 .6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문항과 동일하게 활발한 기질(12개 문항), 규칙적 기질(9개 문항), 적응적 기질(9개 문항)의 세 개 하위영역,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유아의 기질에 대한 문항과 짝을 이루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활발한 기질 .69, 규칙적 기질 .86, 적응적 기질 .6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그림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와 유아의 기질 점수를 각 문항별로 짝지어서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에서 유아의 기질 점수를 뺀 후 절대 값을 구하여 산출한다. 구체적인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는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진다'라는 유아의 기질 문항과 '나는 아이에게 새로운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라고 한다'라는 어머니의 요구도 문항을 함께 측정한다. 그 후 어머니의 요구도 점수에서 유아의 기질 점수를 뺀 후 절대값으로 변환한 값이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점수이다.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실제적 요구도	−	유아의 기질	=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그림 1〉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측정 방법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측정하는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평정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아의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문항 중 6번과 26번은 역채점한 후 점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다.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가능한 총점 범위를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활발한 기질 요인이 0점~36점, 규칙적 기질 요인과 적응적 기질 요인이 각각 0점~27점이다. 각 하위요인 별 점수가 작을수록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에 요구하는 정도의 차이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9월 부산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세 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4, 5세 유아 29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연구의 목적과 주의사항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질문지는 유아의 담임교사들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 회수되었다. 배부된 설문지 중 245부가 회수되어 약 8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그 중 다수의 결측값을 포함하고 있는 24부를 제외한 총 22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첫째,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측정 변인 별로 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아와 여아 두 집단 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 적응적 기질)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는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아의 연령을 회귀방정식의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를 2단계로 투입하여 독립변인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영향이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성에 따른 문제행동,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유아의 문제행동,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 변인 중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서만 유의한 성차(t = -2.39, p < .05)가 나타나, 여아의 어머니(M = 2.34)가 남아의 어머니(M = 2.20)보다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내재적 문제행동은 유아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결과 (N=221)

		남(n = 117)	여(n = 104)	t
		M (SD)	M (SD)	
유아의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1.71(0.58)	1.57(0.55)	1.82
	내재적 문제행동	1.57(0.38)	1.58(0.45)	- .1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2.20(0.44)	2.34(0.40)	-2.39*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활발한 기질	0.62(0.35)	0.59(0.38)	.59
	규칙적 기질	0.49(0.36)	0.43(0.36)	1.25
	적응적 기질	0.50(0.32)	0.48(0.34)	.33

*p < .05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60～.99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 값은 1.01～1.67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남아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117)

변인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1) 외현적 문제행동	2) 내재적 문제행동	3) 활발한 기질	4) 규칙적 기질	5) 적응적 기질	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1.	-					
2.	.52**	-				
3.	.49**	.23*	-			
4.	.20*	.14	.45**	-		
5.	.15	.33**	.41**	.38**	-	
6.	.13	.29**	.13	- .08	.12	-

*p < .05, **p < .01

〈표 4〉 여아의 측정 변인들 간 적률상관계수 (*N*=104)

변인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1) 외현적 문제행동	2) 내재적 문제행동	3) 활발한 기질	4) 규칙적 기질	5) 적응적 기질	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1.	-					
2.	.63**	-				
3.	.29**	.13	-			
4.	.04	.03	.52**	-		
5.	.03	.24*	.56**	.53**	-	
6.	.03	.17	.06	.01	.11	-

*$p < .05$, **$p < .01$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각각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221)

	남아		여아	
	1단계 β	2단계 β	1단계 β	2단계 β
유아의 연령	- .22*	- .17*	- .31**	- .2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08		.04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활발한 기질		.49***		.40**
규칙적 기질		.01		- .10
적응적 기질		- .07		- .14
R^2	.05*	.27***	.09**	.20*
ΔR^2		.23***		.10*
F	5.62*	8.36***	10.50**	4.77**

*$p < .05$, **$p < .01$,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 적응적 기질)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남아와 여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전체 회귀 모형은 모두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남아: F = 8.36, p < .001, 여아: F = 4.77, p < .01). 먼저 남아와 여아 모두 1단계에 투입된 통제 변인인 유아의 연령(남아: β = - .22, p < .05, 여아: β = - .31, p < .01)이 외현적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공격성, 과잉행동, 산만성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단계에 투입된 변인의 경우도 남아와 여아 모두 동일하게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남아: β = .49, p < .001, 여아: β = .40, p < .01)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가 요구하는 특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차이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규칙적 기질과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던 연령이 외현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5%를 설명하였고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23%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27%를 설명하였다. 여아의 경우에는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던 연령이 외현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9%를 설명하였고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10%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여아의 외현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20%를 설명하였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외현적 문제행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221)

	남아		여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β	β	β	β
유아의 연령	- .23*	- .19*	- .09	- .1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25**		.15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				
활발한 기질		.07		.02
규칙적 기질		.01		- .13
적응적 기질		.25*		.28*
R^2	.05*	.22***	.01	.10
ΔR^2		.17***		.09
F	6.23*	6.21***	.85	2.21

*p < .05, **p < .01, ***p < .001

먼저 남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제 변인인 연령과 독립 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활발한 기질, 규칙적 기질, 적응적 기질)가 투입된 전체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6.21, p < .001). 먼저 1단계에 투입된 통제 변인인 남아의 연령(β = - .23, p < .05)이 내재적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적게 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2단계에 투입된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 = .25, p < .01)와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β = .25, p < .05)가 연령을 통제한 후에도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애정철회나 죄의식 유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남아를 통제할수록, 그리고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남아의 실제 특성과 어머니가 요구하는 특성의 차이가 클수록 남아가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 및 신체화 증상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활발한 기질과 규칙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던 연령이 내재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5%를 설명하였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17%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 변량의 총 22%를 설명하였다.

반면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유아의 연령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외현적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칙적 기질과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와 여아 모두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와 여아 모두 외현적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고,

유아교육기관에 적응하게 되어 규칙에 익숙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현적 문제행동이 감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강지현, 오경자, 2011; 이경숙 등, 2004).

다음으로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유아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특성과 어머니가 요구하는 특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차이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가 외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실제 기질과 어머니가 요구하는 기질 간의 차이가 클수록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결과(박혜원, 2012; 장유진, 이강이,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활동성이 높고 적극적인 특성의 유아들이 자신의 좌절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경우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형태로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욕구가 좌절되어 정서적으로 흥분되기 쉽기 때문에 외현적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이정숙, 문보경, 2011). 이와 반대로 활동성이 낮은 유아에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 유아가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아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신현정, 2008).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접근할 때, 어머니가 자녀의 활동 수준과 주의집중 수준을 고려하여 유아의 기질에 조화로운 요구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규칙적 기질과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 기질과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장유진, 이강이, 2011)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은 외현적 문제행동보다 내재적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어머니는 유아를 돌보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며(이희경, 2014), 간섭하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게 되는데(박혜원, 2012), 이러한 양육태도는 유아의 접근성과 유연성을 더욱 저하시켜 위축행동, 불안, 신체화 행동 등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유진, 이강이, 2011).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적응적 기질이 내재적 문제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장에 제시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 발달을 억제하여(전숙영, 2007)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자기 자신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Barber, Olsen, & Shagle, 1994) 유아가 위축되거나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심리적 통제가 외현적 문제행동보다 내재적 문제행동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처벌하는 등의 권위적인 훈육을 많이 하게 되면 유아가 주의산만하고 공격적인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연구(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는 심리적 통제보다 체벌이나 소리 지르기, 언어적 위협 등과 같은 권위적 훈육방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문제행동과는 달리 남아와 여아의 경우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남아의 경우에만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내재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내재적 문제행동에 있어서 유아의 연령은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외현적 문제행동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내재적 문제행동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강지현, 오경자, 2011)와 일치하며, 이는 내재적 문제행동이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이르기까지 외현적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이 발달되는 경로에 대해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들(Barber et al., 1994;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부모의 강요를 내면화시키며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여 결국 내적 불안이 높아지는 결과(전숙영, 2007)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부모의 높은 통제와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여 결국 우울, 불안 등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조은주, 이은희, 2013).

다음으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남아와 여아가 내재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지닌 유아들이 내재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정숙, 문보경, 2011)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적응적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박혜원(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적응적 기질은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응적 기질이 낮은 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 경우, 어머니는 유아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적응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더 통제적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김연옥, 김영희, 2002).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지나친 질책과 기대는 유아의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형성하

도록 하며, 이로 인해 유아의 접근성, 적응력과 유연성을 저하시키게 되어 오히려 유아의 부적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장유진, 이강이, 2011). 또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고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의 유아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며 소심하고 위축되기 쉬우므로, 불안정하거나 기분이 상하기 쉬운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현적 문제행동보다 내재적 문제행동에 취약해질 가능성(이정숙, 문보경, 2011)이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활발한 기질과 규칙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유아가 내재적 문제행동보다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정숙, 문보경, 2011)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규칙적 기질의 경우에는 유아의 수면, 식사, 대소변을 보는 시간 등에 있어서 규칙적인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유아의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아에게 억지로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는 다른 기질에 비해 규칙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실제 특성에 맞추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이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아의 경우 우울, 불안, 위축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위축행동(권기정, 전숙영, 2010; 전숙영, 2007)은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우울, 불안, 위축에 있어서 여아보다 대체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정윤주, 200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유아기는 남근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어머니와 남아는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역동이 많은 시기이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권기정, 전숙영, 2010). 그러나 여아의 경우 통계적으로 .05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경계선 수준(p = .059)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여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 지어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고, 예방적이거나 치료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유아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내재적 문제행동의 경우 유아의 성에 따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요약해 보면,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아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Campbell(2002)은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양육방식 간의 조화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기능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유아에게 포괄적이면서도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포괄적이면서도 각 유아에게 맞는 개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유아의 자신감이나 죄책감 자극, 실망감 표현, 애정 철회, 고립시키기, 수치감 느끼게 하기 등을 통해 유아를 훈육하는 방법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은 유아의 탐색을 격려하고 돕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이 때 바람직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 대신 갈등이 내재된 저항을 유도하는 훈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Campbell, 2002). 특히 이러한 훈육태도가 유아의 성에 따라 내재적 문제행동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서 부모가 남아와 여아의 심리적 역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칭찬하기나 합리적 설명 등과 같이 애정을 매개로 한 긍정적인 훈육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훈육방법을 부모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어머니는 유아의 지각이나 인지 발달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완충할 수 있기 때문에(조운주, 김은영, 2014), 부모는 자녀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개별 자녀에게 맞는 훈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김기홍, 이주리, 2010). 이에 Campbell(2002)은 개별 유아에 따라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부모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양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모든 유아들의 기질과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를 달래는 능력이나 활동수준, 경계심 그리고 적응력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진다는 것을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자녀 관계에 도움을 주며,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중재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 유아의 경우 문제행동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으며, 그 변산이 크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독립변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제한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행동 수준을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의 성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Barber, 2002)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아의 성에 따른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이 부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의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를 측정하는 도구의 경우 일부 하위영역에서 내적합치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기

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신뢰할만한 척도의 개발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남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보다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로운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로운 관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문제행동을 중재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외현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내재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 중 어느 한 영역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기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조화롭게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외현적, 내재적 문제행동을 모두를 중재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른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유아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의 성에 따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현적 문제행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 활발한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재적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높은 심리적 통제와 적응적 기질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클수록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남아와 달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아의 기질-어머니의 요구수준 간 차이가 내재적 문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문헌

강지현, 오경자 (2011). 유아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연령, 기질과 양육행동의 영향에 있어서의 성차.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6**(1), 1-21.

권기정, 전숙영 (2010).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유아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2), 51-66.

김기홍, 이주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기질 및 조화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47-65.

김나희, 박보경, 도현심 (2012). 어머니의 인성특성 및 유아의 기질과 과보호 및 통제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51-163.

김연옥, 김영희 (2002).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성격특성이 유아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문집**, **5**(5), 123-140.

김정민, 윤진 (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심리학회지**, **5**(1), 55-72.

김혜진, 김영아, 이진, 오경자 (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25-144.

민정임,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17-137.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9). 모-자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지**, **14**(4), 549-566.

박혜원 (2012). 유아의 기질 및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를 매개변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주현, 이순형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조화적합성이 유동성 지능 및 결정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4), 47-71.

신현정 (2008). 유치원 오후 재편성 종일반 유아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발달심리학회지**, **17**(4), 53-74.

이시자 (2013). 유아의 성별, 기질, 유아-어머니 간 기질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257-278.

이정숙, 문보경 (201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조절방략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질 하위 요인들에 따른 군집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 81-97.

이희경 (2014). 부모-자녀 기질조화적합성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유진, 이강이 (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59-76.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정서적 자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5**(6), 101-111.

정윤주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조운주, 김은영 (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한국청소년연구**, **24**(1), 35-70.

한세영, 박성연 (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허미경, 이소은 (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Bates, J. E. (1990).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A commentary on the Sanson, Prior, and Kyrios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36*(2), 193-199.

Campbell, S. B. (2002).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Second Edition: Clin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Guilford Press.

Campbell, S. B., Shaw, D. S., & Gilliom, M. (2000). Earl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oddlers and preschoolers at risk for later mal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2*(3), 467-488.

Coplan, R. J., & Rubin. K. H. (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2-91.

Gilliam, W. S. (2005). Prekindergarteners left behind: Expulsion rates in state prekindergarten p rograms. *FCD Policy Brief Series, 3,* Retrieved from http://challengingbehavior.fmhi.usf.ed u/explore/policy_docs/prek_expulsion.pdf/

Kaiser, B,. & Rasminsky, J. S. (2012). *Challenging behavior in young children: Understanding, preventing, and responding effectively*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Merrell, K. W. (2003).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PKBS-2,* **영유아행동척도: PKBS-2**(최승숙, 한경근, 신현기 역).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Paterson, G., & Sanson, A. (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u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 Criss, M. M. (2001).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583-598.

Steinberg, L. (2002). *Adolescence* (6th ed.). Boston, MA: McGraw-Hill.

Stone, L. L., Otten, R., Janssens, J. M. A. M., Soenens, B., Kuntsche, E., & Engels, R. C. M. E. (2013). Doe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late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An examination using the Berkeley puppet int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4), 309-318.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Van Aken, C., Junger, M., Verhoeven, M., Van Aken, M.A.G., & Dekovic, M. (2007). The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ur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5), 553-572.

Verhoeven, M., Junger, M., Van Aken, C., Dekovic, M., & Van Aken, M. A. G. (2010). Mothering, Father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in Toddler Boy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307-317.

Willoughby, M., Kupersmidt, J., & Bryant, D. (2001). Overt and covert dimensions of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3), 177-18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disparity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on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21 children aged 4 to 5 and their mothers from three kindergarten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To measure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were use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assessed by the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The 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 and DOTS-R: ethnotheory was used, to measure the disparity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for boys and girls, the disparity between children's activity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had a negative effect on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owever,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oth for boys and girls. Second, for boys, the high level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disparity between children's adaptive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had a negative effect o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owever, for girls, such effects were not significant.

▶*Key Words : behavior problem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disparity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demand level*

논 문 투 고 2015. 06. 15.
수정원고접수 2015. 07. 15.
최종게재결정 2015. 07. 25.